GGM 위탁생산 캐스퍼… 경차 활기, 일자리 확대 '두 토끼'

현대車, 실내 공간성 최대확보 등 국내소비 트렌드 맞춰 '반등 예고'
온라인 예약 첫날 1만8940대 계약
올 연말까지 1.2만여대 생산 목표
내년도 최소 생산량 7만대 전망

현대차 캐스퍼 라이프스타일.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침체된 국내 경차 시장은 물론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등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국내 경차 시장은 낮은 수익성과 최근 차박과 캠핑 등 열풍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판매량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캐스퍼는 실내 공간성을 최대한 늘리는 등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추며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예고했다. 여기에 캐스퍼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위탁생산 중이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 첫날 캐스퍼의 계약 대수는 1만8940대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국내 경차 3종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레이의 1~8월 누적 판매량 2만3657대의 80.1%에 달하는 수치다.

캐스퍼는 국내에 출시된 경차 중 첫 SUV 모델이다. 배기량 1000cc에 전장 3595㎜, 전폭 1595㎜, 전고 1575㎜ 등의 외형을 자랑한다.

캐스퍼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자 업계는 국내 경차 시장에 새로운 국민 경차가 등장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경차 시장은 날로 고급화·대형화되는 자동차 트렌드에 따라 지난해 10만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경차(모닝·레이·스파크) 판매량은 9만6232대다. 모닝이 3만8766대로 가장 판매량이 많았고 레이가 2만8530대, 스파크가 2만8936대로 집계됐다.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다. 3개 모델의 올해(1~7월) 누적 판매량은 5만5250대로, 지난 1월 7500대로 출발해 4월 8834대, 6월 8175대, 7월 7663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업계는 캐스퍼의 예상밖 흥행으로 경차 시장 전체 분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캐스퍼의 흥행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 공장에서 539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15일부터 캐스퍼의 본격 생산에 돌입하며 올 연말까지 1만2000여 대, 내년에는 최소 7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만약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는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GGM측은 차량 생산량 증가 시 내년에는 4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의 흥행으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차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로 제시한 1만2000대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스퍼는 ▲개성을 살린 내·외장 디자인과 색상 ▲용도에 따라 실내 공간 조절이 가능한 시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기본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 ▲운전자 중심의 편의사양 탑재 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캐스퍼를 가솔린 1.0엔진으로 운영하며 가솔린 1.0 터보 엔진을 탑재한 터보 모델은 '캐스퍼 액티브'라는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캐스퍼의 판매가격은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이다. 1.0터보 엔진과 역동적인 전용 외장 디자인으로 구성한 선택 사양 '캐스퍼 액티브'는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스마트·모던 95만원 ▲인스퍼레이션은 90만원이 추가된다. 이달 29일 공식 론칭하고 10월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바, 의약품 위탁개발 플랫폼 '에스-셀러레이트' 공개

개발단계 드는 시간 획기적 단축
품질향상 등 CDO수주 경쟁력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에스-셀러레이트(S-Cellerate)'를 공개했다. 세포주 개발부터 품목허가신청(BLA)까지 개발 단계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은 크게 높여 CDO 수주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일 사흘간 열린 세계 유망 바이오산업 컨퍼런스인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에서 에스-셀러레이트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보스턴 컨벤션의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전시회 등 두 가지 방식을 접목한 형태로 진행됐다.

에스-셀러레이트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표준화해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 2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에스-셀러레이트부터 임상시험계획신청(IND)' 플랫폼 서비스로, 초기 세포주 개발부터 생산공정·분석법 개발, 비임상 및 임상 물질 생산, IND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두번째는 '에스-셀러레이트부터 BLA' 플랫폼 서비스로, 후기개발단계에서 공정특성 확인(PC) 및 공정성능 적격성평가(PPQ)를 거쳐 상업용 판매를 위한 BLA에 이르는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에스-셀러레이트에는 위탁개발 서비스의 전 영역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 혁신 기술이 모두 담겼다. 각 개발 단계별로 최적화·표준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시험계획 신청(IND)까지 빠르면 9개월이면 가능하다. 또 공정 특성확인부터 공정 밸리데이션 등의 최종 판매 승인까지 시장 진입을 앞둔 의약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CDO 사업에 진출한 이후 3년만에 81건(2021년 2분기 기준)의 계약을 수주하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시료 생산, 상업 목적 대량 생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일 사흘간 열린 세계 유망 바이오산업 컨퍼런스인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에서 에스-셀러레이트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세포 증식력과 생존력을 대폭 향상한 자체 세포주 'S-CHOice(에스-초이스)'를 론칭한 이래 이를 채택한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규확진자 1700명대… 전국확산 우려

서울 641명 등 수도권서 77% 차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17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이 비수도권 방문 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전국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2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일 1729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틀 연속 17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0일 신규 확진자는 1604명으로 3일 연휴 내내 1600~1700명대를 기록 중인다.

지역별로 서울 641명, 경기 528명, 인천 145명 등 수도권에서 13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77.2%를 차지하는 규모다. 비수도권에서는 389명이 발생 22.8%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26.6명으로 전주(1762.9명) 1700명대를 돌파한데 이어 18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확진자 수 역시 1399.4명으로 직전 주 평균(1326.1명)보다 5.5% 늘어났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타지역 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추석 연휴 이후 확산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날 광주에선 명절 친인척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가 5명이 확진됐고, 지난 주말 경기도 친척이 다녀간 이후 일가족 3명이 확진된 사례도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20명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에서도 추석 연휴 정읍을 방문한 서울 거주자 2명 등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전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휴 가족 모임보다 무증상자인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따른 감염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수도권에서 시작된 비수도권 확산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